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선한 목자 김선도 감독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11월 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장으로 장례예배 드려

믿음을 삶으로 보이신 장천 김선도 감독님

평생을 하나님과 교회, 복음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김선도 감독님께서 2022년 11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20세기 위대한 복음전도자이며 청교도적 영성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선한 목자 故김선도 감독님의 장례예배가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드려졌다.
장례예배는 김정석 담임목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교계 지도자,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장(葬)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집행위원(부목사, 원로장로, 시무장로)들에 의해 대예배실로 운구 된 김선도 감독님께는 교회사랑, 나라 사랑을 상징하는 광림교회기와 태극기가 올려졌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철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29대 감독회장)은 "김선도 감독님은 어려운 시대에 보내심을 받고 웨슬리의 후예로 사명을 감당한 복음의 승리자이다. 또한 새로운 통찰력과 복음적 확신의 비전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위상을 높였다. 우리는 그 뜻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장례집행위원장 장세근 장로의 감독님 약력 낭독과, 추모 영상에서 김선도 감독님의 생전 마지막 찬송은 장례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이어진 조사에서 전용재 감독(27대 감독회장)은 "김선도 감독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큰 별, 큰 비전의 목회자였다"고 했다. 서일영 원로 장로도 광림교회 성도로서 김선도 감독님과 함께한 믿음생활의 그리운 소회를 전했고, 이어 김진호 감독(25대 감독회장)의 축도와 가족들이 헌화를 마친 후 출관했다.

광림수도원 에베소광장 뒤편 장지에서 12시에 드린 하관예배는 권병훈 목사(상계광림교회 담임목사)사회로 시작되었다. 황웅식 목사(신애교회 담임목사)는 눈물의 기도로 감독님을 보내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 소망의 위로를 전했다.

김영헌 감독(서울연회 17대 감독)은 "김선도 감독님은 생명을 살려내는 체험적 신앙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산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며 김선도 감독님을 향한 깊은 추도의 마음을 전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을 선고한 후 유족들과 성도들은 헌화를 하며 故김선도 감독님의 하관예배를 마쳤다.

이상희 기자

2 광림의 강단 가까이 다가가라
3 광림 스토리 김선도 감독님 장례예배
4 하나님을 만나다 청년부 사랑트리 캠페인
6 믿음의 현장 광림서교회·광림북교회
7 믿음의 현장 제22회 선교구 성가제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가까이 다가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눅 7:14)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관 뒤를 따라오며 슬피우는 과부를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주목하셨던 사람들은 슬픔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며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만난 한 과부는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당시에 여자가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앞날에 극심한 시련과 가난, 혹독한 고독이 기다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녀에게는 한 가닥 희망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그녀의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잃는 화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나의 생명처럼 여기던 존재를 잃어버린 슬픔 앞에서 우리들은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보다 더 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돌보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긍휼히 여기는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긍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시선은 관 뒤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에게 민감하셨기에 그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과부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기에 과부의 괴로움과 아픔에 자신의 마음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아픔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말라"(13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이 움직여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11~17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둘째,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마음, 긍휼

예수님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눅 7:14)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민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줍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눅 10:33~34).

두 본문을 보면 "가까이 가서"라는 말이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셋째,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는 긍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인성의 과부는 상한 갈대이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을 것입니다.(사 42:3)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는 과부에게 어떠한 소망과 기쁨도 없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아들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에게는 인생의 모든 희망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눈물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눅 7:14~15)

삶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생명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이 생명의 소생으로 이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한계성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과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 안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통해 참된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선도 감독 장례예배, 광림수도원 하관예배

포토 뉴스

담임목사 동정

12/3	경조위원회 총회
12/4	선교구성가제
12/6~8	하반기목회세미나
12/9	감리교군선교회 실행위원회
12/10	스데반가족송년페스티발
12/11	성서주일
	새가족송년회
	광림복지재단이사회
	세례예식(3)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합니다"

청년선교국 12월 4일~25일까지 <2022 사랑트리 캠페인> 펼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성탄트리의 불빛이 밀레니엄공원을 환히 비추고 있다. 광림교회는 12월 4일(주일) 저녁 청년선교국 주관으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진행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신 아기 예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해마다 청년선교국은 성탄트리를 세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

밀레니엄공원에서 성탄트리 점등식

"5.4.3.2.1 점등!" 힘찬 카운트 다운 소리에 맞춰 점등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둠이 걷히고 성탄트리의 불이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다. 밀레니엄공원에 모인 성도들은 한 해 동안 힘겹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하기 위해 성탄트리를 세웠습니다.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길 소망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성탄의 계절에 LFC 청년선교국은 12월 한 달간 <사랑트리 캠페인>을 펼치고 모금된 후원금으로 강남지역의 어려운 이웃 1,000세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사랑트리 모금행사는 12월 4일(주일)~25일(주일)까지 밀레니엄공원과 구름다리에서 진행 중이다.

빨간 모자를 쓴 청년들은 성도들이 전해준 정성과 사랑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에 감사하며 차가운 바람과 추위 속에도 따뜻한 온정이 내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행사를 준비하고 섬긴 박현서 성도(청년부 2교구장)는 "청년부 사랑나눔 행사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이런 기회를 통해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성도는 발길을 멈추고 "추운 날씨에 난방과 먹거리로 힘들어 할 분들을 생각하니 작은 정성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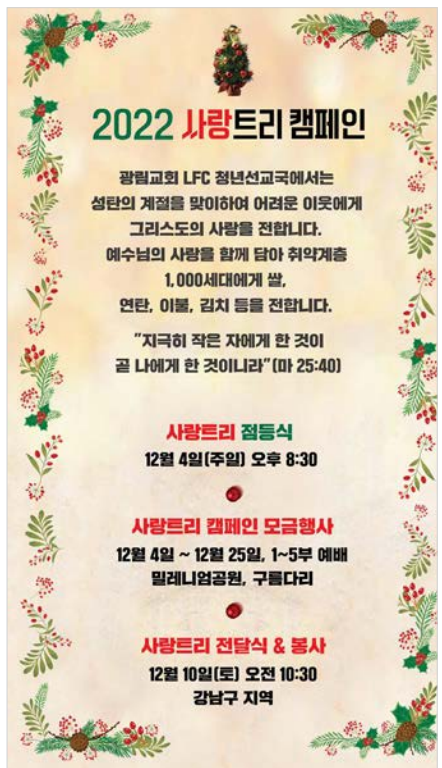
이번 행사 후원액의 목표는 5천만 원이며 강남지역 내 소외계층 1,000세대를 섬기게 된다. 우선 1차로 12월 10일(토) 오전에 본당 로비에서 사랑트리 전달행사를 하고 광림교회 청년들이 강남구 지역 구룡마을내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했다. 청년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광림교회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연탄과 이불, 쌀과 김치 등의 선물을 전달했다.

올해는 강남복지재단, 태화복지재단과 합력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보살필 예정이다.

3년간의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사정으로 난방비가 걱정되어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연탄과 이불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선물이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기쁘게 전하고 있다.

후원문의 : 이동원 전도사(02-2015-116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4-095753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소현수 기자



2022년 경조위원회 총회, 한 해 동안 봉사활동 보고

경조위원회(위원장 송병제 장로)는 12월 3일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2022년도 경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선교구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각 교구의 경조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경조위원회 사업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수고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눅 7:11~17)의 제목으로 "예수님은 목자없는 양 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신다. 또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도 위로해 주는데 아들을 잃고 애통하는 과부에게 아들의 목숨을 살려 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했다. 마찬가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처럼 고통당하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전하면서 그동안 경조 임원들이 수고한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순서에서는 2022년도에 진행된 경조위원회 사업과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잠시 김선도 감독님에 대한 추모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병제 장로는 "얼마전 소천한 감독님에 대한 장례 절차를 한마음 한 뜻으로 잘 치루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의 경조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경조 임원들에게 노고를 치하 드린다"며, "오늘 설교 말씀처럼 방황하는 자,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임원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행사들이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경조를 위해 수고한 선교구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경조 임원들에 대해 각각 책정된 수만큼의 행운권 추첨 시간을 갖고, 당첨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득섭 기자

스데반 가족들이 하나가 되다

<2022 광림 스데반 가족 송년 페스티발> 12월 10일 열려

남선교회총연합회(총회장 박기연 장로)가 주관하는 <2022 광림 스데반 가족 송년 페스티발>이 12월 10일(토) 오후 4시 30분에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스데반 페스티발은 교회의 젊은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2016년 이후 매년 연말에 열리는 행사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중단된 후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많은 광림교회 스데반선교회원 가족들이 컨벤션A홀에 모인 가운데 시작한 1부 순서에서는 여는 예배 및 찬양의 시간으로 참석자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온 가족이 함께 퀴즈를 풀고 푸짐한 상품을 받는 '가족오락관' 프로그램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오후 6시 부터는 저녁식사로 준비한 미스터피자 & 샐러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애찬을 나눴다.

이어서 이한진 재즈밴드의 캐롤 공연과 김정석 담임목사 내외분과 스데반 회원 부부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얼마전 소천한 김선도 감독님에 대한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감독님의 아들로서, 또 며느리로서 느꼈던 감회나 지난 날의 에피소드 등을 담임목사 내외분에게 묻고 또 답하는 등 진솔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B홀에서는 자녀들이 모여서 스토리텔링 가스펠과 함께 매직버블쇼와 벌룬쇼 등이 펼쳐졌으며, 스페셜 코너로 선착순 50가정에 산타할아버지의 깜짝 선물과 크리스마스 가족사진 촬영시간도 가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경품추천 시간으로 당첨자들에게는 LG스텐바이미, 닌텐도스위치, 발뮤다 토스터기, 테팔 팬 및 외식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다.

박기연 장로는 "얼마전까지 각 선교구 주관 연합스데반 모임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스데반 회원 가족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동안 소원했던 소속감이 되살아날 수 있고, 예배참석에 대한 동기부여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로 인해 젊은 층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스데반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적극 참여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2023년 광림캘린더 성화로 제작

스마트폰 일러스트로 말씀을 시각화

2023년 광림교회 7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캘린더가 제작되었다.
이번 광림교회 캘린더는 동작구 빛그림교회 담임 서정남 목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 제작되었다. 서 목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시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다.

성화를 그리는 서 목사는 화가이자 작가, 바이블 일러스트레이터, 폰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복음사역을 하는 서 목사는 매일 묵상한 성경 말씀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 늦깎이 목사로 60살이 넘어 목회를 시작한 서 목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머리에 떠오른다고 한다.
"성경을 시각화하여 그림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성경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마무리를 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은 성도들이 그림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세상의 화가에서 주님의 화가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서 목사는 말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광림의 성도들은 새해 광림 캘린더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한다.
2023년 새해 캘린더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성도들에게 무료로 배부된다. 성도들은 성화를 통해서 말씀 묵상으로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캘린더에 표시된 모든 교회일정들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정순 기자

신앙 간증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녕하세요. 광림교회 청년부 5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 민다정입니다.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루고 얼마 뒤 김선도 감독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장례를 지내며 새삼 믿음의 조상을 통해 내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선도 감독님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우리 교인들은 광림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적극적인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도 참 많은 것을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시고 삶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근대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지켜내시고, 끊임없이 베풀며 타인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장례예배를 드리며 문득,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하여 이렇게 모여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주고 있음이 감사하여서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따뜻하고 바르게 커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라는 점도 감사함으로 느껴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족 안에서 느끼고 누리며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전 15:42~44)

우리는 그날이 오면 다시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며,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먼저 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김선도 감독님, 사촌 오빠 그리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웃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그들과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음에 슬플지라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민다정 교구장(청년부)

목회현장

"은혜 아니면"

정용식 목사 (4선교구)

목회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기적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병든 몸이 나음을 입고, 막막했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굳게 닫혀있던 인가귀도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목회하는 4선교구의 한 권사님께서는 작년 2월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1년 만에 모든 치료를 마치고 현재는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운영하시는 회사의 인사 문제가 늘 골치였는데 기적처럼 해결되었고, 어린 남매를 둔 한 집사님 가정은 자녀들의 진학문제가 단번해 해결되는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한 성도님은 올해 뜨거운 성령체험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전도의 삶을 살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은혜" 그래서 4선교구는 이번 성가제에서 "은혜 아니면" 이란 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어둠속에 있던 내 영혼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사에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연습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구의 간식과 식사를 섬기겠다고 하시는 성도님이 줄을 섰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주는 은혜에 감사'입니다.

한 성도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가제를 위해 무명으로 헌금하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제 영혼과 가정에 영광의 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아멘" 성가제를 위한 찬양이 아닌, 선교구 성도님들의 온전한 신앙고백이 찬양 속에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늘 동일한 고백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만 목회하겠습니다."
4선교구 통해 그 은혜가 지역과 삶에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광림서교회

감사 더하기, 사랑 나누기

광림서교회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해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자 <감사 더하기 사랑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모든 성도들이 헌수건과 무릎 담요, 생필품 등을 모으는데 함께 참여하여 춘천 사랑의 집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참여한 안용자 성도님은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필요한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12월 대강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사랑의 슈박스>를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한 슈박스를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과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6)

주님의 말씀따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며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광림서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광림북교회는 광림교회의 막내 교구로,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코로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구 성가제'가 3년 만에 열리게 되어 북교회 교우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대상을 목표로, 또 120명 이상 참석을 목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일 3부 예배 후,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열심히 연습에 동참하였습니다. 본당에서 성가대로 섬기셨던 권사님들,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던 성도님들, 오랜만에 찬양 연습을 하며 연습 중에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지난 세월 동행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 내게 베푼 놀라운 축복, 약속의 주님 그날에 모든 성도 감사하며 주님 얼굴 맞이하리라."

열심히 연습은 했지만, 성가제 당일,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였고,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받지 못하였지만, 대상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광림북교회에 베푸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목회세미나

목회자의 소명과 사명 강조

광림교회 1년 목회를 되돌아보고 내년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2022년 목회세미나>가 12월 6일~8일까지 광림 수도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목회 세미나에서는 각 선교구와 교회내 부서, 외부 기관 등 광림교회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며 내년 목회를 구상했습니다.

목회세미나의 핵심은 코로나 이후 달라진 신앙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는 달리 예배 생활만 유지하는 미진한 모습을 성장시키고자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정석 담임목사님은 "결국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건 희생과 헌신 뿐"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소명과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목회세미나가 열린 광림 수도원에는 얼마 전 고인이 되신 고 김선도 감독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김선도 감독님의 묘소를 방문하여 영혼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시 배워 소명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님은 "현재 한국 교회가 어렵지만 광림교회가 교회 회복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청년, 청장년 세대의 신앙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교회가 있음에도 유튜브로 2~3개의 설교를 듣는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감동을 주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광림교회, 선교구별 해외 선교 등 창의적인 목회 아이디어를 함께 모았습니다. 또한 선교구와 주중 프로그램인 샤이닝 스쿨을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가정-학교-교회의 신앙적 연결고리를 만들 것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2023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더 큰 부흥과 성장으로 한국 교회의 소망되는 광림교회 교역자가 될 것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용찬 목사(문화홍보실)

제22회 선교구 성가제

12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14개 선교구가 참여하는 <2022년 선교구 성가제>가 열렸다. 성가제는 매년 대강절을 맞아 12월 첫째 주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뜻깊은 행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린 제22회 성가제는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웠고 광림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세원 권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성가제에서 대상은 4선교구, 금상 7선교구, 은상 3선교구, 동상 광림남교회 1선교구가 수상했다.

백명순 기자

4선교구 대상

7선교구 금상

3선교구 은상

광림남교회 1선교구 동상

1선교구 장려상

2선교구 격려상

5선교구 소망상

6선교구 소망상

8선교구 장려상

9선교구 격려상

10선교구 장려상

광림남교회 2선교구 소망상

광림서교회 격려상

광림북교회 인기상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22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의 판결 요 8:7

초막절 축제가 이어지는 어느 날, 산헤드린 회의의 재판관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왔다. 예수는 여인을 잠시 바라본 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말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에게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만일 예수가 간음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한다면, 당시 사형 선고권과 집행권은 로마 총독의 고유 권한으로 명백한 월권이어서 예수를 총독에게 고소할 수 있다. 아울러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 자신의 가르침에 역행한다고 비난받게 된다.

반대로 예수가 '여인을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어떤 선택도 예수에게는 올무였고, 예수는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미끼로 자기를 체포하려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 말도 없이 땅바닥에 글씨를 썼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듯 의기양양했다.

마침내 아무 말이 없던 예수가 입을 열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마디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다. 살아오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며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교리상으로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다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다. 그리고 서로 눈치만 보던 군중들은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났다.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외 없이 자리를 떠났다. 겉보기에만 거룩한 죄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겉보기에 치욕스러운 죄인은 남아 있었다.

예수가 여인에게 말했다.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여인은 눈물을 보이며 간신히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 **간음한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_**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장면이다. **렘브란트의 작품**

▲**예수 그리스도와 소경 바디매오_** 여리고 성에 살던 바디매오는 앞을 전혀 못 보는 소경이며, 매우 가난한 거지였다. 이 그림은 바디매오가 눈을 뜨려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눈 뜨임을 받고자 용기를 내어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다. **칼 하인리히 블로흐의 작품**

눈먼 거지 바디매오 눅 18:42~43

어느덧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와 제자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도착했다.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머물다가는 여리고 성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렸다. 여리고 성문 앞에는 바디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여리고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동냥하고 있었다.

바디매오는 예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예수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또 자신 같은 맹인(盲人)의 눈을 뜨게 한 일들을 들으면서 언젠가 예수가 이곳에 온다면 자기 눈을 뜨게 해주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여리고 성에 예수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수백 명의 사람이 그를 맞이하러 성문 입구로 몰려들었다. 바디매오는 간절하였다. '예수를 만나면 나도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다.

바디매오는 사람들이 술렁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바디매오는 힘껏 소리쳤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매오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예수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는 걸음을 멈추고 바디매오를 데려오라고 말하였다. 바디매오가 가까이 오자 예수는 물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매오는 예수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매오의 믿음을 본 예수는 말했다.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그러자 바디매오는 즉시 눈 고침을 받았다. 그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니 앞이 보였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 또한, 길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도 모두 합류하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광림뉴스레터

성탄절 추천 선물
〈명화로 보는 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